

buddhanews.com

문이 많아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 문 찾기 어렵다

25면에서 계속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화두도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늑대 새끼가 죽었는데 원호 대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냥 놔두고 염불을 해주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염불을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벌써 백 년이 흐른다고 하네요. 그러니 천도는 언제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뜻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천도할 때도, 잘 차려서 염불을 해 달라고 그러면 벌써 몇 년이 흘러요. 과거가 됩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과거지요. 우리가 목마를 때 직통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못 마시고는 그냥 염불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안 대사는 찢을 한 그릇 갖다 놓으면서 그 늑대 새끼한테 찢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염불이 아니라. 이게 무명을 벗기고 직통 천도시키는 염불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늑대 새끼는 대안 대사가 된 겁니다.

만약에 늑대의 마음, 그 영혼을, 의식을 내 속에 수만 개를 넣는다 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을 만 개를 그려 놓으면 맞습니까? 둥그렇게 만 개를 그려 놓으면 맞습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모두 도인들이 돼서 대답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던 나도 배울 겸 여러분도 배울 겸, 서로 도반 아닙니까? 대답을 해도 함이 없습니까. 귀신 방귀 권 거와 같죠. 어때요?

대중 속에서: 없습니까.

권스님: 허허, 없죠?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도살장에 가고 돼지가 도살장에 갈 때에 한생각을 한다면, 그 모습을, 무명을 다 벗기고 그 마음을 넣어 준다면 그냥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에 하는 거 뭐죠? 마취. 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의식을 빼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도 받지 않고 무명을 벗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보살행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할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머릴 깎아야만 공부합니까? 머릴 안 깎았든 깎았든 마음공부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권세가 높든 낮든 차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네는 대통령이라도, 저 빌레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도도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누가 나를 구더기로 만들어 놓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아예 각오했으니까요.

여기 이 지역에서 내내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타지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런데, 포항제철이

저렇게 커지고 하나가 신경이 쓰이는 일들도 많겠죠. 하지만 포항에 계신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려면, 자유스럽게 사시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끔 하시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이 포항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불씨를 심어서 선맥을 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 편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버려지, 귀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저런 풀잎 하나도 모두 여러분 편이 됩니다. 돌이 아닌 까닭이요. 모든 것을 주고만 산다면, 나를, 아집을 버린다면, 욕심을 버린다면, 증오를 버린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린다면 일체 계율을 지킬 수가 있고 시간도 똑바로 지킬 수가 있고 의리, 도의, 사랑, 자비까지도 전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한테 "당신은 공덕이 없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도 공덕이 없습니까?" 하고 묻자 "공덕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물질적으로 보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유무가 한데 합쳐져서 계합이 돼 가지고 들어

는 대장장이가 풀무질했죠.

인군이 답 밭을 지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도리를 영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를 시켜서 불러오게 했죠.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위로는 목은 빛을 갖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고, 이거 추워서 못 견디겠군.' 하면서 냇두리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 "할아버지 적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장간을 했습시다. 그런데 아집에 불씨도 별로 없는데, 그 불씨가 꺼지면 불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로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칠 남매나 되니 '위로는 목은 빛을 갖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라.' 한 것이 그 뜻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 "무르팍을 딱 치면서 "그 한마디에 전체 모두가 계합이 되는구나." 하면서 상놈의 문서를 다 지워 버리고 평민으로서, 대장장이를 면하고 농사를 짓게끔 토지도 주고 하인들을 내주었답니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목은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를 근중히 아시고 사랑하고, 또 머느리는 어머니를 근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머느리와 어머니, 부모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일을 하는 데에도 잘 풀릴 것이고, 돈도 그런 화목한 집에 '아이, 이 집에 들어가면 나도 웃겠구나.' 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좇아다녔지 돈이 좋아서 여러분을 좇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 돈은 안 좇아갑니다. 돈더러 물어보세요. "돈, 나 갈 때 너도 같이 가자." 이렇다면 "당신이 좋아서 좋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좋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라고 안 잘 겁니다. 몸품이 좋아 안 좇아갈 겁니다. 단지 좇아갈 거는 여러분의 주인공과 자기의 의식 자체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뭘 운동을 해야 한다, 약을 먹어야 한다, 별짓 다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도 그렇고,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20년을 앓으면서

만약에 부처를 하나 때려부숴도 그렇고 저 신중당에 해 놓은 것도 없애려면, 그 의식을 다 빼고서 그 종이만 찢어 버려야지 의식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때려 버리고 태워 버린다면 내 몸품이 신중당한테 맞아 죽어요. 허허허... 자기니까, 돌이 아니니까 신장을 자기한테 다 넣고 없애야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네요. 아까 원호 대사 얘기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썽? 판 데로 샀어요. 그래서 두번째, 그 찢을 놓고 먹었는데 그게 천도라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가? 염불을 해야 천도가 된다고 하는데 염불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늑대 새끼 찢먹이는 게 천도라고 하는데 그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도리냐? 천도시킬 수 있는 도리냐? 간단하게 말입니다.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다는 것です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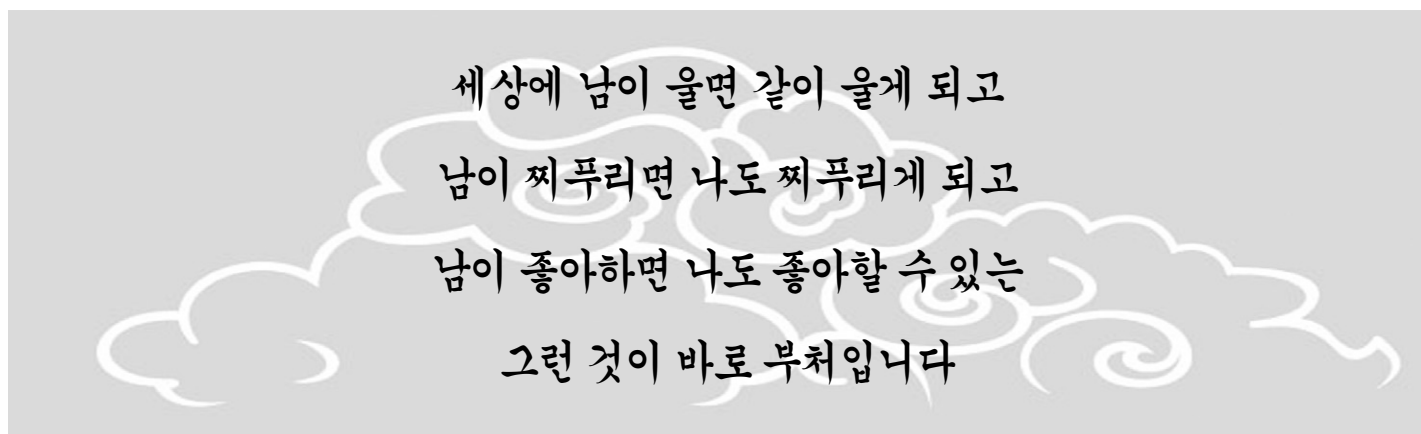
세번째, 원호 대사가 이렇게 무애가를 불렀죠. '도끼 없는 도끼에 자루 끼워 줄 사람이 없는가. 자루를 맞추어 줄 사람이 없는가.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리라.' 했거든요.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리라.'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 관문이 될 수 있고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모두가 관문 아닌 게 없고 만 아닌 게 없고 해탈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니, 거기에는 틀도 없고 명경도 없고 먼지 앓을 것도 없고 뒤를 것도 없으니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누가 "당신은 죄업이 많아서 이렇소. 당신은 새달에 이사를 못 가요. 부처 사요." 이러더라도 그걸 덮어쓰지 말란 말입니다. 쇠뿔 주지도 말 것이며 덮어쓰지도 말라 이거죠.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날더러 "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더라 말입니다. "병이 있잖잖 내놓으시오. 그럼 내가 병 고쳐 주리다." 하면서 병 불을 자리가 어딴냐고 악을 뺨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까우뚱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짚을 아주 깎듯이 하고 가더군요. 그때서부터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한생각이! 우리가 지금 맥박 뛰듯이 찰나찰나 돌아 가는데 거기 병 불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가난 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업보가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요.

오늘 이것으로써 마칠까요?

※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 전체가 들린다 이 소립니다. 그게 공덕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전체, 위로 공양을 하고 그 밥 한 그릇이 되잖아 (배를 두드리시며) 수십 중생들을 다 먹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먹는 걸로 하지 마세요. 위로는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는 여러분 집 안의 중생들에게 공양을 먹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 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맛없는 건 안 먹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기 이전에 위로는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 공양을 먹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나라 인군이 평복을 입고 순행을 도는데, 어느 담 목통이를 들어가려니까 "에이구, 추워. 대대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서부터 이게 무슨 풀인가! 위로는 목은 빛 갖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라, 이거 정말 추워서 못 견디겠구나." 하면서 손을 짹짹 비비면서 그런 낱두리를 하면서 풀무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 예전

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현실에서 갖는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실 겁니다. 공경도 "어머니 들어가세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라는 게 공경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고 싶어하시는 대로 따라 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우리 노인네들은 운동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시장 구경도 좀 하시고 어머니 잡수고 싶은 것도 좀 사 가지고 오세요." 하고 시장바구니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다면 좋죠. 또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해서 "무당집에 가지 마세요. 그것은 귀신 노릇이요 그렇게 타의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라고 목살하지 말고 어머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되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런 도리를 아시게 하는 것도 주인공입니다.' 한다면 내 주인공의 그 자가발 전소에서는 벌써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차차차 마음이 바뀌어져서 머느리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천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 줄 아십니까? 무를 생즙 내고 술 한 손가락 타서 몇 번 먹으니까 그게 낫더라 이겁니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요, 이천 원 가지고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동시에 나도 좋았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남이 울면 같이 따라 울게 되고 남이 찌푸리면 나도 찌푸리게 되고 남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답게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움직여봤다 하면 화신이니, 그것이 딱 데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장도 자기한테 있고 관세음도 자기한테 있고 신중도 자기한테 있고, 의사도 자기한테 있고 용신도 자기한테 있고 지신도 자기한테 있고 모든 게 자기한테 있습니다.

물질을 버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도 날더러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만 개를 수집해다 놔도 그것이 돌이 아닌 까닭에 탈이 없는 겁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급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한방(韓方) 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